

TTA 표준화위원회 조직개편 추진

이한수 | TTA 표준화본부 표준운영부장

1. 머리말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컨버전스화 및 유비쿼터스 개념의 도입에 따라 정보통신 표준화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주기의 단축과 다양한 서비스 및 신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관련된 분야의 표준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표준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의 조직도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다양한 포럼의 출현과 함께 IT 전략포럼에서 개발된 표준(안)이 적기에 제안되어 TTA 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표준화위원회와 포럼간의 상호협력 및 유대관계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의 신성장 동력엔진사업 추진 정책에 따른 표준화 추진체계를 뒷받침해 줄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

TTA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따라 2003년도에 대대적인 표준화위원회 정비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전략계획특별위원회 산하에 조직개편 ad-hoc 그룹을 구성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2월 18일에 개최된 제36차 표준총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본 원고를 통하여 TTA 표준화위원회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신규조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신규조직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소개하여, 현재 활동중인 표준화 위원들과 표준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TTA의 표준화위원회를 통한 표준화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본문

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 조직개편은 일부 기술그룹의 신설, 폐지에 지나지 않았던 지금까지와의 조직개편과는 달리,
- 간결하고 유연한 표준화위원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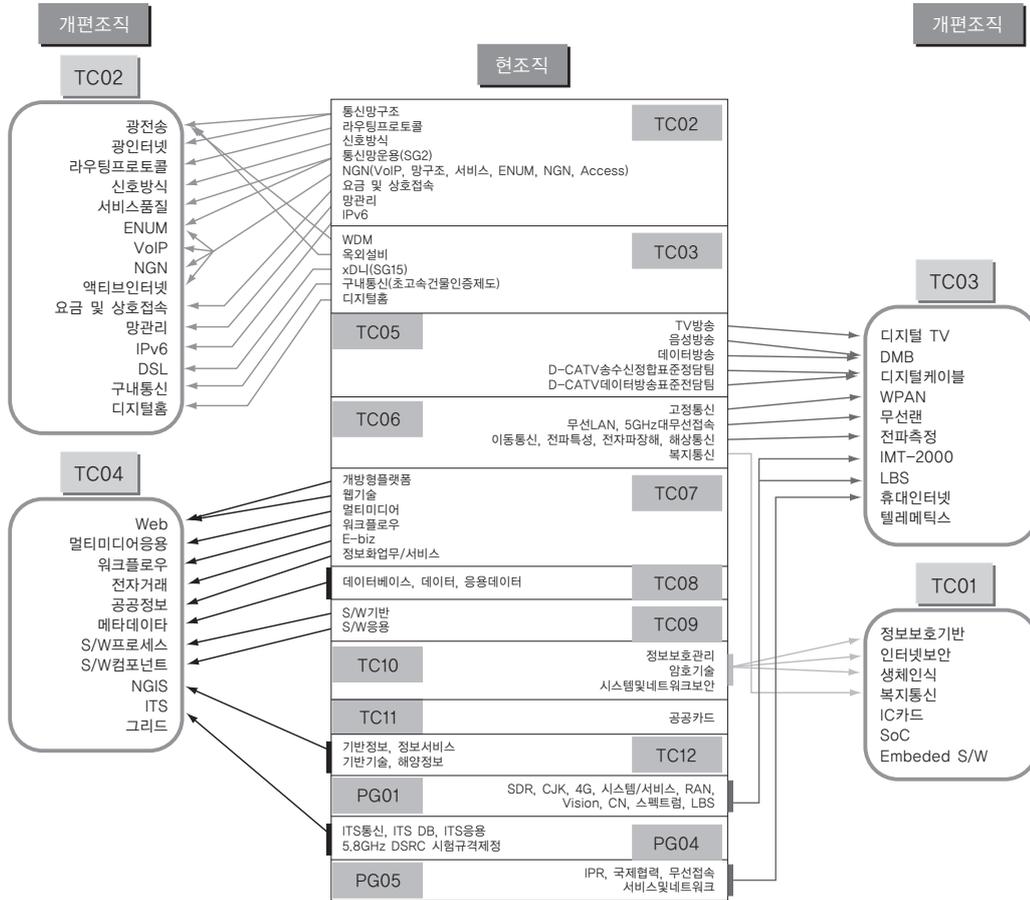
[그림 2] 개편 조직도

위에서도 말했지만 프로젝트그룹은 상설조직인 아닌 업계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언제라도 신설, 폐지가 가능한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다. 조직개편 ad-hoc Group에서는 현재 표준화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제안중에 있는 표준화과제를 유사분야별로 재그룹핑하고, 여기에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표준화 분야들을 추가하여 위와 같은 (안)을 제안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본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실제 위원회 구성과정 및 운영과정을 거치면서 위 프로젝트그룹은 다소 다른 모습으로 출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신규조직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표준화위원회 조직은 확정되었으나, 이렇듯 대폭 개편된 조직으로의 완전한 전환과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현행조직과의 연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져갈 것이며, 위원회 구성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규정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신규조직이 운영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화조직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표준화활동이 새롭게 출발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조직과의 충분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매끄럽게 운영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여기서 표준화의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그룹을 중심으로 현행 조직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3] 현조직과 개편조직과의 관계

휴대인터넷 프로젝트그룹이나 디지털홈 프로젝트그룹과 같이 현행위원회와의 맵핑이 분명한 위원회도 있는 반면에, NGN 연구반과 같이 1개 위원회가 다수의 위원회로 분리된 경우도 있으며, 광전송 프로젝트그룹과 같이 여러 위원회의 부분적인 기능을 떼어서 한 개 프로젝트그룹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위 맵핑도를 중심으로 현재 활동중인 위원들은 신규조직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맵핑이 어려운 경우, 활동위원의 의견을 들어 참여할 위원회를 정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표준화위원회의 핵심주체인 위원들이 관련 분야에서 계속해서 활동토록 하여 추진중에 있는 표준화활동이 끊어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듯 현재 활동위원을 수용한 뒤에도 위원구성이 되지 않은 위원회나 위원보강이 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가로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정비하고 보강토록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위원추천 및 등록을 통한 위원회 구성은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구성과 함께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인 표준화위원회 운영규정 개편 작업 역시 2월 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운영규정 개편작업은 기존 조직개편 ad-hoc 그

를 보강하여 구성된 운영규정개정전담팀에서 개정 초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는 2월초 TTA 사업참가사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위원회 구성과 규정개정작업이 마무리된다면, 3월부터는 신규 표준화위원회 조직이 정식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신규조직이 정식 운영되는 3월 이전까지는 현행조직이 운영되어질 것이다.

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

조직개편 ad-hoc Group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신규조직으로 개편되었을 때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현행체제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가졌었으며, 조직개편(안)과 함께 각 조직별 기능과 운영상 주요개선사항도 총회에 상정하였다. 물론 세부 운영규정(안)은 현재 마련중에 있으나, 지난 36차 총회에서 채택된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될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표준 제·개정 업무에 있어서는 기술위원회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위원회의 심의 권한 강화와 각 세부 분야별 표준제정에 있어서의 프로젝트그룹에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즉, 기술위원회에서는 표준유지보수, 국제표준과의 관계 및 표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표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프로젝트그룹의 운영과 기술위원회내 프로젝트그룹간의 업무조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표준 추진시에는 개정전 표준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명시토록 하였으며, 표준개정시에 이전 표준의 폐지 여부도 함께 상정토록 하여, 쓰이지 않는 표준이 계속 남아있으므로 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다. 또한 표준제정 이후의 유지보수 이외에, 과제 채택단계에서부터 타 과제와의 중복성 및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채택토록 하고, 채택된 과제가 일정기간 추진되지 않을시 기술위원회에서는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하여 운영위원회에 폐지를 제안토록 하였다. 비록 작은 변화이지만, 이러한 절차상의 개선은 실질적인 표준활동의 강화와 보다 효율적인 표준화추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제정주체인 프로젝트그룹의 신설·폐지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타 기술위원회와의 업무중복문제 등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토록 하여 무분별한 프로젝트그룹 신설을 지양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프로젝트그룹은 연구목표 및 연구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운영토록 하고, 연구범위 등의 변경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목표 달성시 위원회 폐지를 원칙으로 하였다. 기존에는 기술위원회 산하 조직인 연구반의 신설 권한을 기술위원회에 두었었으며, 기술위원회와 함께 연구반도 반 영구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왔었다. 일부 위원회의 경우는 연구반명과 실제 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표준화과제의 성격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표준화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혼란을 야기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서는 프로젝트그룹의 역할과 목표를 뚜렷이 하고, 프로젝트그룹의 신설 및 폐지를 원활히 하여 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젝트그룹의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적 표준화 추진을 위해 산하에 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반은 프로젝트그룹의 연구범위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실무반의 위원은 프로젝트그룹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실무반별로 TTA 위원회 게시판을 활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위원 해임규정을 보완하여 사전통보없이 연속 2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참관자로 등록하고, 참관자로서 계속 참여시 다시 위원자격을 획득케 하였다. 이는 의결권이나, 발언권을 회의에 연속으로 참여하여 회의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제한하기 위함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제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은 정리하고, 표준화에 관심이 있고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멤버가 정비되어져 표준의 품질 향상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기술위원회 및 프로젝트그룹의 부의장을 복수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프로젝트그룹의 의결규정을 추가하여, 표준화추진이 보다 용이하도록 보완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일부 사항들이 개선될 것이나, 전체표준 제정절차나 위원회의 고유임무는 대체로 유지하면서 개편조직이 운영되어질 것이다.

3. 맺음말

지금까지 표준화위원회조직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질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산업체의 표준화 참여 활성화 및 포럼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사무국과 위원회와의 유대 관계 강화 등이 기대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지금까지 쌓아온 표준화체계와 구조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리위주의 표준화가 자칫하면 기반 기술분야 및 비인기 분야에서의 표준화를 침체시키는 것은 아닐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높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구조 자체보다는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더욱 중요하며, 운영규정 자체보다는 변화된 규정의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표준화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개편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번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신규조직을 계속 정비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간다면, 이번 조직개편이 국내 표준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글을 빌어 지금까지 조직개편(안) 마련에 고생해주신 강신각 의장을 비롯한 ad-hoc Group 위원, 그리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주신 많은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리며, 새로운 조직체계가 급변하는 표준화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국내 표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표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